

제 29 호

삼위 일체 대축일
(강림후1)

1973. 6. 17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성년에 즈음하여

안 복 진 신부

성년이란 대사의 해라고도 하며, 특히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수괴행위와 신심 행위를 하는 신자들의 죄벌을 사해 주고, 그밖에 여러가지 영신적 특전을 베풀어 주는 해로써, 처음에는 로마-마 베드로 대성전의 베드로 사도의 묘소를 참배하는 사람에게만 대사를 베풀었으나, 점차적으로 지방의 성당을 순례해도 대사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년의 역사는 멀리 3천년전 이스라엘의 역사에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매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 특히 7년씩 일곱번째 되는 50년마다는 성년이라 하여 종살이 하는 사람까지도 많은 풀값을 받고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었으므로 그 혜택도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천년 동안 인류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빵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던 시대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시대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마치 어릴때는 춥고, 배고프고, 아픈것 때문에 울지만, 장성하면 부모가 나를 이해 하지 못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등의 정신적 문제로 울게되듯이, 3천년전의 행복은 배부르고 편한 물질적인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행복은 친구가 있고, 사랑이 있는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천년전의 성년은 편히 될 수 있고 자기 재산을 되찾는 그런 은총을 주는 때였으나, 오늘날의 성년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인간은 많은 재산을 모으고, 편리한 기계를 발명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왔지만, 한편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못먹은 세상이라고 불평도 하지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주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면서 함께 불행의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행과 고통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3천년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었으므로 법으로 성년을 선포하고, 법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정신적 내적 쇠신이므로 아무도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천주 성부와 독생 성자와 성신은 찬미받으소서. 정녕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제1독서** (신명기 4: 32-34, 39-40)

야훼께서 천상천하의 하느님이시요, 다른 하느님이 없다.

□**증계송**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다. 주께서 당신 기업으로 뽑으신 백성은 복되도다.

□**제2독서** (로마서 8; 14-17, 성서 p. 352)

성신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있으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8; 16-20, 성서 p. 73)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신자들의 기도**

순정이 p 2 "성년에 바치는 신자들의 기도"를 바칩시다.

□**영성체송**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느님이 너희 마음 속에 당신 아들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 이 주간의 성경 *

18(월) 독서 (고린토후서 6: 1-10, 성서 P. 412)

복음 (마 태 오 5: 38-42, 성서 P. 10)

19(화) 독서 (고린토후서 8: 1-9, 성서 P. 415)

복음 (마 태 오 5: 43-48, 성서 P. 10)

20(수) 독서 (고린토후서 9: 6-11, 성서 P. 417)

복음 (마 태 오 6: 1-6, 16-18, 성서 P. 11)

21(목) 독서 (고린토후서 11: 1-11, 성서 P. 420)

복음 (마 태 오 6: 7-15, 성서 P. 11)

22(금) 독서 (고린토후서 11: 18, 21-30, 성서 P. 421)

복음 (마 태 오 6: 19-23, 성서 P. 12)

※저녁미사

독서 (베드로 전서 1: 8-12, 성서 P. 528)

복음 (루 가 1: 5-17, 성서 P. 121)

23(토) ※ 성 요한 세자 탄생

독서 (사도행전 13: 22-26, 성서 P. 296)

복음 (루 가 1: 57-66, 80, 성서 P. 121)

늘의 성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바로 잡아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의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성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년은 자기 안에서부터 불신과 증오, 불의와 부정, 불목과 싸움 그리고 온갖 죄악을 불식하려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만 은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중앙 성당 주임 신부)

성년 신자들의 기도

+ 성년 선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시기에 모든 사람이 회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 드립시다.

1.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년에 풍부한 은총을 내려 주시는 인자하신 천주여, 거룩한 교회의 책 지체가 스스로의 약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일상 생활에서 요청되는 회생과 극기를 감수 인내하고, 더 많은 자발적 속죄행위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은 교회로 하여금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밝혀 줄 수 있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직자들은 성년의 깊은 뜻을 충실히 전달해 주고, 수도자들은 천주와 일치된 생활의 기쁨을 보여주어, 모든 신자들이 성년의 참뜻을 깊이 깨달고, 속죄의 행위로 새로이 그리스도를 찾아 얻으며, 이웃 형제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들일 수 있게 하소서. ◎
 3.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로 성화되어, 죄를 씻고 은총을 얻는 수단이 되었으나, 고통에 억눌린 형제들로 하여금 인생의 높은 가치를 깨달아 자신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깨끗한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
 4. 갈라진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과 시대와 가정의 제한 속에서 자기 탓 없이 갈라진 교파에 속하게 된 모든 형제들로 하여금, 속죄의 행위로 천주와 화해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같은 우리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 나라 건설에 함께 이바지 하게 하소서. ◎
 5.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신앙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의와 부정, 증오와 불목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신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성년이 뜻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온 인류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소서. ◎
- +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천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청하는 바를 내려 주시며 감히 청하지 못하는 바도 덤으로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 아멘.



두 이야기

1.

근년에 볼 수 없었던 선봉(?) 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애칭으로 터진 빌리·그레햄 목사의 대강연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 넓으나 넓은 여의도 광장을 배운 마지막 날의 110만 인파 (주최측 주장 경찰 추산은 47만)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강조한 빌리·그리햄 팀은 수백만의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수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게 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이 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무엇이라고 그 이야 할 것인가?

2.

옛그제, 근래에 보기 드문 감명깊은 영화를 하나 보았다—“마마 돌로레스”(사랑은 저 멀리서)—보잘 것 없는 한 여인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화를 주는 그런 내용이다.

돈을 너무나 중하게 여겨 사랑하는 여인과 귀여운 아들을 잃은 젊은이에게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가 하면, 눈물조차 말라버린 완고하고도 증오에 찬 골칫거리(?) 여자 죄수들을 끝내 울려놓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증명서 따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순박한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3.

이 두가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민학교 때 배운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갑)

전신 전화국 앞
〈프랑스 제과 옆〉
전화 ② 5013

임금님 찻집

교우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김원준(야고버)
(보광출판사 영업부장)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제과소**

전화 ② 658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왕자표 연탄

전화: ②5287 ②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수옥(분도)

* 대회의광장

* 잔디밭



가정 방문에서 느낀 가책

최 성 환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저는 인후동 구역장으로 지난 5월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가정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가정마다 교적을 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번 관공성사를 안보았습니까? 왜 2년간이나 성사를 안보았습니까? 왜 교리반에 아이들을 안보십니까? -교적이 명시된 대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구역장이라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보다 열성을 냈더라면 이러한 냉담자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마다 냉담하신 분은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그 가정의 어른이요, 호주입니다. 그러면, 안부인만은 죄가 많아서 성사보고 미사참례할 의무가 있고, 바깥 남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성사볼 것도 없고 미사 참례할 의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설령 티끌만한 죄도 없다 할지라도 주일미사 참례할 의무는 있을 것이며, 1년에 춘추(春秋) 두번은 성사볼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든 악이든, 부모의 본만 받는 어린 자녀에게 까지 좋지못한 표양을 보여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주무시는 여러분, 대관절 누구를 위해서 천주님을 믿으며, 누구를 위해서 성사를 보고 주일을 지킵니까? 신부님을 위해서, 부모형제를 위해서, 부부간을 위해서,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라 할지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위하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한 혈통 타고 나온 형제간도

평생을 동거하며 사랑하는 부부간도, 어느 누구도 내영혼을 구해주시지 못합니다. 내영혼은 오직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서 그렇게들 얻으려고 애를 쓰는 부귀영화는 아무리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때가 오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노치기도 하고, 변해 버리는 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천상 천하에 유일무이(唯一無二), 오직 하나뿐인 보물,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이 보배야 말로 노력만 하고 힘만 쓴다면,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놓치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보배중의 보배를 얻어 가지고도 기쁘출도 모르고, 보관할 줄도 몰라서 해태(게으름)이라는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도 아무런 줄 모르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본당신부님께서 그렇게도 잠을 깨라고 외치셔도 말입니다.

내자신을 믿지 마시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이면 서도, 누가 3년을 더 살겠다고 장담하며, 5년을 더 살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흐르는 물결같다는 세월, 풀잎끝에 맺혀있는 이슬같다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우리를 생활이지만 한끼만 걸려도 아우성을 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통 무관심합니다. 왜들 그래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들 합니다. 뜻아니한 때에 내리시는 천주님의 엄명에 후회하지 마시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바로 성년의 때입니다. 하루속히 잠을 깨고 정신을 가다듬어, 타당한 고백성사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앞으로는 냉담자라는 낙오자의 이름을 듣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잠깐 지나가는 남은 여생을 신자답게 살아갑시다.

(인후동 구역장)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②3498)

- 19일 (화) 성경교실 (8시)
 - 20일 (수) Recreation, 다함께 노래부르기 (8시)
 - 23일 (토) Situational English (5-6시, 휴게실)
 - 24일 (일) 음악감상 (8시, 휴게실)
- ※ 새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문화교실 그전과 같이 계속합니다.

- 불어 : 목요일 8시
- 영어 : 금요일 8시
- 독어 : 화, 수, 금 5시 6시

* 축 발전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발전 *

동남 샵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 주 대 리 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성체 수녀회 종신 허원식 (6월 21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종신 허원을 하시는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례 바랍니다.

(소) (식)

2. 학생회 봉사활동

전주지구 연합회 제2차 봉사활동이 다음 주일 5시반에 있습니다. 학생회원들은 비를 들고 중앙성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학생회 청·백 체육대회 (오늘 오전 9시)
해성학교 교정에서 있는 체육대회에 적극 참여 바람
3. 기도합시다
본당의 장 수녀님(성가지도)과 정 수녀님(사무담당)의 종신 허원식이 오는 21일 (목) 11시 중앙성당에서 있습니다. 기구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유저비 현황 보고 (5월말 현재)

수입 3,214,712원
지출 2,759,202원
잔액 455,510원 (주교님 감사편)
□ 지난 주일 봉헌금 37,271원, 감사합니다

수입 3,214,712원
지출 2,759,202원
잔액 455,51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경품놀이 있습니다.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3. 예비신자 교리시간 안내
화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오전 11시
4.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12,59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3. 애령회 기금을 위한 성미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4. 피정비 미납금 완납 요망
6월이 마지막 분납 달입니다. 완납합니다.
5. 레지오 마리에 회합일자

순결하신 어머니 (매주 화요일 밤 8시반)
동신자의 모후 (매주 목요일 밤 8시반)
치명자의 모후 (매주 금요일 밤 8시)
하늘의 문 (매주 일요일 9시)
□ 지난 주일 봉헌금 8,92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받은 은혜의 감사와 새로운 은혜를 비는 마음으로 교무금 내는 일에 적극 협조합니다.
2. 꼬미시움 월례회 (다음 주일로 연기)
3. 본당 신부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성미 2말 1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642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유낙철

- 1. 사도회 월례회 성월 미달로 유회
2. 꼬미시움 월례회 (다음 주일로 연기)
3. 어린이 보레 영세식 (오늘 오후 2시)
대부, 대모, 부모님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 조합 미사회 (6월 22일 <금> 저녁 미사후)
입원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상관편 어두리 이따다레나씨 6월 11일 전중
□ 지난 주일 봉헌금 10,063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견진 성사 및 주교님 순시 (오늘 공식 미사)
① 모든 신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교님을 환영합니다.
② 견진 성사 받을 사람은 대부 대모와 함께 9시반 까지 성당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③ 사도회 임원은 견진성사 후에 있을 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감사를 받으십시오.
2. 꼬미 시움 월례회 (다음 주일로 연기)
견진관계로 준비 회합도 23일 밤 8시반에 있습니다
3. 애령회 특별헌금에 적극 협조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1,160원,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성심이며,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 닭·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 시장 닭전 전화 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

* 역전 보광출판사 인쇄 *